

>>> 삼성네트웍스 넷장(Net匠)

“사내 기술교육, 사내 네트워크 전문가에게 맡겨요”



최고자격증 보유자 모임서 교육과정
만들어 직접 교육, 올해 포럼 성격 더 강화

특정 IT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내 동호회. IT 기업에 다수의 IT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사내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어 화제다.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 삼성네트웍스(대표 박양규)의 사내 동호회 ‘넷장(Net匠)’은 네트워크 전문업체인 삼성네트웍스에서 최고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넷장의 출발은 사내 정보통신기술사 및 CCIE들이 모이는 회식자리에서 박양규 사장이 “사내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함께 모이는 장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기술 교육 등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는 의견을 제시한 200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지에 공감한 기술사 및 CCIE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태동한 넷장은 단순한 동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호회다. ‘Networks’와 ‘장인(匠人)’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해 만들어진 동호회 이름 역시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이 되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 넷장의 회원은 모두 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 현재 시스코 네트워크 분야 최고 자격증인 CCIE 소지자 18명, 정보관리기술사 6명, 정보통신기술사 4명 등 회원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관리기술사는 정보처리 업무와 시스템 설치·운영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사는 유선 및 무선을 포함하는 전기·전자통신 분야에서 전문가임을 증명해주는 자격이다. CCIE 역시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자격이다. 현재 삼성네트웍스는 시스코시스템즈의 국내 파트너 중 CCIE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도 한데, CCIE가 이처럼 많은 것은 사내양성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네트웍스는 CCIE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

든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이 양성 과정을 거쳐 응시한 4명이 CCIE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회장 직책이 없는 넷장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임선진 기술사는 “거의 대부분의 CCIE들이 사내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다. 수업료, 응시료, 실습테스트를 위한 미국·일본·호주 등지의 체재비 모두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사 역시 학원등록비와 내부 스터디그룹 운영을 위한 전담 기술사 채용, 교재비 등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

다. 삼성네트웍스는 성균관대학교와 공학석사 과정도 운영, CCIE들의 대학원 진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 사내 양성 대상자로 CCIE를

획득한 SE(System Engineer) 3팀의 정우용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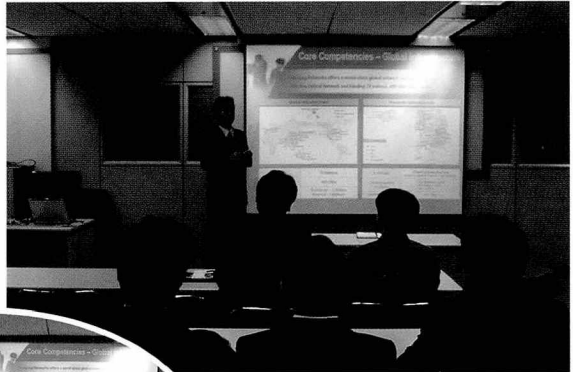
원은 “사실 혼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넷장 회원과 직장 선배들이 시험 과목에 대한 강의 외에도 노하우 등을 전수해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술 2팀의 강운경 사원은 “CCIE 인증을 받고 난 뒤에도 업무에 제대로 적용을 해나가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혼자서는 그런 공부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사내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니 효율도 높고, 그동안 잘 몰랐던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넷장 활동의 핵심은 자체 세미나 등 공동 학습과 직원 대상의 사내 교육이다. 넷장 소속 직원들 간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세미나를 하거나, 특정 교재를 발제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턴십 교육, 신입사원 교육 등도 넷장이 맡고 있다.

특히 넷장은 회사의 업무 분야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집단답게 사내 기술인력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홍보팀의 정혜림 차장은 “회사 안에 FE(필드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넷장이 담당한다”며, “지난해 아웃소싱 했던 인력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들



에 대한 교육과정까지도 넷장이 직접 만들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회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비교적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던 넷장은 올해는 보다 조직적인 틀을 갖추고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임선진 기술사는 “넷장을 만든 첫해였던 2006년은 여러 방면으로 역할을 찾아가면서 시험적인 운영을 해보는 한해였다. 모임을 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고, 회사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정식으로 회장도 뽑고, 모임도 보다 정례화하는 등 넷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형태에서 모임의 위상을 탄탄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사 안에서의 역할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스스로 사업을 기획해서 회사에 적극 제안하고, 전문가들의 집단답게 공동 저술로 전문 기술서적도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한 넷장은 내부 회원들 간에 전문적인 학습 및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선진 기술사는 “삼성네트웍스 사내에 50여 개 동호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전문 기술인력들만 모여서 만든 동호회는 넷장뿐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동호회라기보다는 전문가 포럼과 같은 모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의식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넷장의 올 한해 활동이 주목된다. ☞